

# 瑟瑟·鈿考

명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영 재

目 次	
I. 서 론	III. 결 론
II. 瑟瑟·鈿	참고문헌
1. 瑟瑟에 대한 검토	ABSTRACT
2. 鈿에 대한 고찰	

## I. 서 론

자 한다.

《三國史記》〈色服·新羅條〉에 瑟瑟·鈿이란 기록이 있다. 眞骨女の 冠과 梳에 瑟瑟·鈿을 금하며, 六頭品女の 梳에도 금한다는 내용이다.<sup>1)</sup> 신라 때의 진골녀는 왕비 다음가는 계층의 부녀로, 이들에게도 그 사용을 금한 슬슬·전이 무엇인가를 문헌과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슬슬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것을 정의한 학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녹송석(turquoise)라고 한 Bretschneider,<sup>2)</sup> Hirth, Chavannes, Kremer,<sup>3)</sup> 原田淑人<sup>4)</sup>과 조모록(emerald)이라고 한 Laufer,<sup>5)</sup> 이룡범<sup>6)</sup>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비교·검토하여 슬슬을 밝히고, 鈿에 대해 설명코

## II. 瑟瑟·鈿

### 1. 瑟瑟에 대한 검토

#### 1) 瑟瑟에 대한 정의

슬슬에 대한 문헌 기록은 적지 않다. 그러나 瑟瑟은 보석의 한 가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소리를 형용하는 단어<sup>7)</sup>로, 혹은 바람소리를 형용하는 형용사<sup>8)</sup>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문헌에 기록된 보석의 의미로 쓰인 瑟瑟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辭海》에서는 瑟瑟은 碧珠라 하고 이때에는 특

1) 金富軾, 《三國史記》卷33〈雜志二〉, 景仁文化社영인(1969), 330.  
 2) Bretschneider(1880), *MEDIAE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Routledge & Kegan Paul, 175.  
 3) 幸鴻釗(1925), 《石雅》, 中央地質調查所印行, 67~68에서 Hirth, Chavannes, Kremer의 주장을 재인용함.  
 4) 原田淑人(1962), 〈正舍院寶物雜考〉, 《東西古文化論考》, 吉川弘文館, 151.  
 5) Laufer(1919), *SINO-IRANICA*, Taiwan Th'eng, 516.  
 6) 李龍範(1969),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상인의 무역품〉, 《韓國史學論叢》, 97.  
 7) 張三植編(1980), 《大漢辭典》, 進賢書館, 923.  
 8) 《辭海》, 中華書局(1974), 1936.

히 瑟瑟이라 쓴다<sup>9)</sup>고 하였다. 《晉書》에서는 슬슬은 벽주이며, 보통 瑟瑟로 쓴다고 하였다. 《通雅》에서는 瑟瑟 혹은 보석이라 하였다.<sup>10)</sup> 이 외에도 《魏書》와 《隋書》에도 그 기록이 보인다.

《魏書》〈波斯傳〉; 多大真珠……水精瑟瑟<sup>11)</sup>

〈康國傳〉; 出馬駝……瑟瑟<sup>12)</sup>

《隋書》〈康國傳〉; 出瑟瑟<sup>13)</sup>

〈波斯傳〉; 土多良馬……瑟瑟<sup>14)</sup>

이라 하여 슬슬은 위나라 때 波斯(이란)와 康國(터키스탄의 타슈켄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唐書》〈南詔傳〉중 천자에게 바친 품목에 瑟瑟이 포함되어 있음<sup>15)</sup>을 볼 수 있고, 〈吐蕃傳〉에는 冠의 장식으로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을 瑟瑟이라 하였다.<sup>16)</sup>

瑟瑟의 용도를 보면 부인의 귀에 綴해 사용하거나 땅은 머리에 얹어 사용하였으며, 《中華古今注》에는 “命宮人載通天百葉冠子插瑟瑟細朶”라 하여 관식으로도 사용되었다<sup>17)</sup>고 하였다. 이 외에 《淵鑑類函》에는 “拂菻……其殿以瑟瑟爲柱, 黃金爲地, 象牙爲門扇, 香木爲棟梁”이라 하여 건축자재로도 사용되었다<sup>18)</sup>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보면 슬슬은 이란·타슈켄트·터키에서 생산되어 귀걸이 혹은 수식등의 장식물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건축자재로도 사용된 靑色の 돌[石]임을 알 수 있다.

## 2) 瑟瑟에 대한 諸說

瑟瑟은 碧珠라는 뜻보다는 스산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더 많이 사용된 단어이다. 슬슬을 보석으로 주장한 학자는 Breshneider로, 그는 瑟瑟을 甸子라<sup>19)</sup>하였다. 唐代에서 甸子是 瑟瑟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청록색 보석으로, 중국중세연구가는 이를 turquoise로 보았다.<sup>20)</sup> Persia어로 firuze라 하며, 질에 따라 분류되며 북경에서는 綠松石이라 불리웠다.<sup>21)</sup>

그러나 Laufer는 Breshneider의 주장이 元말기의 기록-陶宗儀의 《輟耕錄》(1339년)-에 의한 것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하였다.

① 슬슬이 보석이라면, 그 결정과 투명함으로 귀한 것이나, 현재 중국에서 녹송석은 값진 것이 아니며, 너무기 큰(斤)으로 계측될 정도이며, 애용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구슬은 말 한 필과 바꾸었다는 옛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녹송석은 투명하지도 않고,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슬슬은 綠松石이 아니다.<sup>22)</sup>

② 슬슬은 중국의 한나라와 관련된 보석으로, 생산된 국가에 따라 구별되어, 波斯·康國의 것은 祖母綠(emerald), 건축에 사용된 것은 孔雀石(malachite)이다.<sup>23)</sup>

이러한 Laufer의 주장을 차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9) ibid. 1936.

10) 《通雅》, 卷48, 13.

11) 《魏書》〈波斯傳〉; 多大真珠……水精瑟瑟

12) ibid. 2281.

13) 《隋書》卷83〈西域·康國傳〉, 1847.

14) ibid. 1857.

15) 《唐書》卷222上〈南蠻上·南詔上〉, 6275.

16) 《唐書》卷216上〈吐蕃上〉, 6072.

17) 《中華古今注》卷中〈冠子朶子扇子〉, 3.

18) 《舊唐書》卷198〈西戎·拂菻〉, 5314.

19) Breshneider(1880), 175쪽.

20) ibid. 140; Hirth와 Chavannes, Kremer등의 주장.

21) 위의 책, 140쪽.

22) 위의 책, 67-68쪽.

23) Laufer(1919), 518.

첫째, 슬슬이 현재 중국에서 말 한 필과 바깥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그가 말한 것은 “瑟瑟珠, 珠之最好者, 一珠易一良馬”라는 기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史記-《新五代史》-에 있는 吐蕃에 관한 기록이다.<sup>24)</sup> 즉 중국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吐蕃(Turfan, 지금의 Tibet)에서의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토번에서는 중국보다 말이 풍부했으며 슬슬의 가치 역시 금을 능가하는 것이었다.<sup>25)</sup> 《萬物草》에는 슬슬을 토번의 大珠라 하여,<sup>26)</sup> 토번에서 소중히 여기는 보석으로 보았다. 현재 티벳에서 금 이상가는 가치를 지닌 보석은 에메랄드가 아닌 터키석이며, 신부가 착용하는 모자 페레타에 장식되는 보석 또한 터키석이다.<sup>27)</sup>

둘째, 녹송석이 투명하지 않음으로 슬슬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의 주장은 《通雅》의 “程泰之則世所傳瑟瑟皆燒石爲然瑟瑟有三種寶石似珠眞者透碧番燒者圓而明中國之水料燒珠亦借名瑟瑟”에 의한 것이다.<sup>28)</sup> 여기서 슬슬은 모두 돌을 구워서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유리를 말하는 것이다.<sup>29)</sup> 유리는 보석을 모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모조한 보석의 이름을 붙여 사용하였다. 《通雅》에서도 역시 “亦借名瑟瑟”이라 하여 슬슬의 이름을 빌린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通雅》의 기록이 슬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리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리 제조기술의 발전과정을 보면, 기술상의 이유로 처음에 제조된 유리는 투명한 것이 아닌 불투명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때에 제작하고자 한 것은 주로 비취, 청금석, 터키석 등과 같은

불투명한 보석들이었고,<sup>30)</sup> 모조하기 위한 보석의 색을 내기 위해 여러가지 광물이 이용되었다. 특히 터키석과 같은 색을 내기 위해서는 銅을 첨가했었다.<sup>31)</sup>

따라서 Laufer가 슬슬이 투명한 보석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리에 대한 기록을 오인한데서 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투명한 터키석이 발굴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터키석은 불투명 보석으로 정의되고 있다.<sup>32)</sup>

다음으로, 중국에 녹송석의 유물이 없기 때문에 슬슬이 녹송석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Laufer가 주장한 이후 중국의 유적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유적이 발굴되었고, 또한 많은 양의 녹송석 유물이 발굴되었다. 殷周때의 유물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 1981년 泰安縣 大汶口에서 발굴된 녹송석이 상감된 骨雕筒은 중국 最古의 자료이며,<sup>33)</sup> 이외에도 殷代の 유적지 등에서 녹송석이 상감된 상태로 혹은 구슬로 발굴되었다.<sup>34)</sup> 그러므로 중국에서 녹송석의 유물이 없기 때문에 녹송석이 슬슬이 아니라고 한 그의 주장은 수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Laufer의 슬슬이 祖母綠과 孔雀石이라고 한 주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모록의 색은 맑은 녹색이다.<sup>35)</sup> 그리고 瑟瑟은 靑色으로 정의된다. 靑은 “石之靑美者, 深靑色, 靑白色”이다.<sup>36)</sup> 靑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靑색의 개념 뿐 아니라 녹색의 개념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24) 《新五代史》卷74〈四夷附錄·吐蕃〉, 918.

25) 《唐書》卷206上〈吐蕃上〉, 6072 : 其官之章飾, 最上瑟瑟, 金次之.

26) 이종세(1949), 《萬物草》, 서울대박물관, 95쪽.

27) NATIONAL GEOGRAPHIC vol. 153 No. 3(1973. 3), 335.

28) 《通雅》卷48, 13.

29) 李時珍《本草綱目》卷8〈金石〉31의 기록에 유리는 돌을 구워 만든다고 하였다.

30) 奇浩元(1974), 《寶石叢書》, 峯岩社, 71.

31) 위의 책, 93.

32) 近山鼎(1982)《寶石·貴金屬大辭典》, 學習研究社, 412 : 1912년 미국의 버지니아주에서 발견된 일이 있다고 함.

33) 飯島武次(1985)《夏殷文化の考古學研究》, 山川出版社, 306-308.

34) 위의 책, 264.

35) Bauer(출판년도미상), Spencer역(1969), THE PRECIOUS STONE, Rutland Tuttle, 526.

36) 中文大辭典編(1973)《中文大辭典 6》,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0178.

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청색과 녹색을 서로 비슷하게 여겨 이들을 혼용했었다. 예를 들면 銅綠이란 말은 銅靑으로도 쓰는데,<sup>37)</sup> 여기서 綠과 靑은 같은 색을 가르키는 것이다. 따라서 슬슬의 벽색이 청색이나 혹은 녹색이나 하는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슬슬이 광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광물류에서 표현된 靑의 의미를 찾아 이를 유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에서 예를 든 銅綠(靑)은 銅에서 생기는 靑衣를 말한다.<sup>38)</sup> 이는 청동기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炭化銅이다. 따라서 슬슬의 벽색은 銅이 함유되어 나타나는 靑衣의 색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Laufer가 주장한 조모록의 색은 크롬에 의한 색이므로,<sup>39)</sup> 銅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벽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 《天工開物》의 靑綠類에 속하는 보석으로 瑟瑟祖母綠鴉鵝石空靑이 있다고 하였다.<sup>40)</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슬슬과 조모록 모두 청녹색계열의 보석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 둘이 서로 다른 보석이라는 것이다. 만약 슬슬이 조모록이라면 이들을 나란히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Laufer는 슬슬이 공작석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작석은 불투명한 녹색의 보석으로 그 색은 녹송석과 같이 銅에 의해 나타나는 색이다.<sup>41)</sup> Laufer는 NOTES ON TURQUOISE IN THE EAST에서 건축자재로 쓰인 onyx라는 것이라고 슬슬을 정의하였다.<sup>42)</sup> 그러다가 SINO-IRANICA에서는 이를 수정하여 拂菻의 건물 기둥에 사용한 슬슬을 공작석이라 정정하였다.<sup>43)</sup> 그의 주장이 어떻게 해서 수

정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공작석이 건축자재로 사용된 유적을 근거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콘스탄티노플의 Sophia사원<sup>44)</sup>과 러시아의 왕궁의 기둥이 공작석으로 만들어져 있다.<sup>45)</sup>

銅에 의한 색을 띠고 건축자재로도 사용된 예가 있으므로 건축자재로 쓰인 슬슬이 공작석이라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章鴻釗에 의하면 중국에도 슬슬을 건축자재로 이용한 예가 있었다고 한다. 한 예로, 胡人이 大秦寺를 중국에 세웠는데, 슬슬을 사용했으며, 그 사원이 땅에 함몰된 후, 큰 비가 그 땅에 내리면 그 곳에서 瑟瑟珠를 주웠다고 하였다.<sup>46)</sup> 胡人이 중국에서 건설한 사원에 이용된 슬슬은 큰 덩어리라기보다는 구슬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큰 덩어리 형태로 이용되었다면 비가 온 후 사람들이 주울 수 있던 것은 구슬[珠]형태가 아닌 조각[塊]이었을 것이다. 이란지역의 사원 건축물은 그 기둥과 지붕등을 구슬형을 박아서 만든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胡人이 大秦寺를 세울 때 이런 방식으로 建造한 것이 아닐까 한다.

### 3) 瑟瑟의 산지와 그 특성

슬슬은 중국에서 고대부터 귀히 여긴 서역 전래의 보석이라 하였다.<sup>47)</sup> 또 《魏書》·《隋書》등에도 슬슬은 중국보다는 波斯·康國·吐蕃 등의 국가와 관련 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Laufer 역시 슬슬이 서역에서 전래된 보석이라 하였고, 특히 Persia와 관련된 보석이라 하였다.<sup>48)</sup>

Persia와 관련된 벽색의 보석, 슬슬이 과연 공작

37) 이희승편(1986)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968.

38) 李繩世(1956), 94.

39) 한국일보사편(1986) 《보석》, 한국일보사, 88.

40) 三枝博音編(1943) 《天工開物·下》, 博英社

41) 近山晶(1982), 678.

42) 章鴻釗(1925), 72에서 재인용.

43) Laufer(1919), 516-518.

44) 講談社編(1979) 《エルミタージュ 博物館》, 講談社, 38-41.

45) Bauer(출판년도미상), 526.

46) 章鴻釗(1925), 89-90.

47) 長澤和俊(1979) 《シルク・ロード史研究》, 圖書刊行會, 300.

48) Laufer(1919), 517.

석인가를 그 생산지를 근거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먼저 공작석의 산지를 살펴 보면, 우랄산맥, 오스트레리아, 칠레 등으로<sup>49)</sup> 기록의 波斯(페르시아), 康國(사마르칸트)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슬슬이 공작석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本草綱目》에 “翫은 唐人이 슬슬이라 하던 것이며, 翫은 靛子를 말한다. 首飾器物에 양하는데 쓰인다”고 하였다.<sup>50)</sup> 또 슬슬은 馬價珠라고도 하는데, 이는 슬슬 하나의 값이 말 한필과 바꿀 정도이기 때문에 유래된 말이며,<sup>51)</sup> 《物理小識》에는 馬價珠를 甸子라고도 했다.<sup>52)</sup> 따라서 슬슬은 서역에서 전래된 甸子·靛子라는 보석으로 장식물에 사용되던 것이라 일단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甸子·靛子は 중국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Bretschneider는 이를 turquoise 즉 녹송석이라 하였고,<sup>53)</sup> Laufer 역시 甸子를 turquoise라 하였다.<sup>54)</sup> 甸子에는 回回甸子·河南甸子·襄陽甸子가 있으며, 그 명칭은 산지에 의한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회회와 하서는 이란의 Nishapur와 Kirman지방을 말하고, 양양은 중국의 운남지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55)</sup> 특히 Nishapur와 Kirman은 이란지역으로 사기의 기록과도 부합되고 Laufer가 주장한 Persia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에도 가장 좋은 질의 turquoise는 이란에서 생산되고 있다.<sup>56)</sup> 이란인 역시 그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turquoise를 매우 좋아하며, 왕의 장식품 및 제기 등 위엄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

을 장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sup>57)</sup> 이란에서는 turquoise를 firoza 혹은 firazaj라 부르며, 이는 ‘승리’라는 의미를 갖는다.<sup>58)</sup> 이것이 Turkey로 건너가 Firuz라 불리게 되었으며, 여기에 ‘행운’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첨가되었다.<sup>59)</sup> 당시 동서무역을 중계하던 Turkey에서 firoza를 행운의 보석으로 전하였고, 유럽에서는 firoza라는 단어보다는 ‘Turkey에서 온 돌’이라는 뜻의 turquoise로 통용되었으며<sup>60)</sup>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받아들였다.<sup>61)</sup> Turkey에서 firuz라 불리던 것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보석의 의미-행운-만 전달되고 이름이 turquoise가 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또 이것이 동양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슬슬[se-se]가 되었다고도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슬슬이 turquoise라는 가정하에서 어원을 찾아 보고자 했으나 이 역시 밝히지 못하였다. 단지 약간의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면, Persia에 farab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을 Turkey에서는 siran이라 불렀는데,<sup>62)</sup> 같은 이치로 firoza의 f도 페르시아에서 Turkey로 전해질 때 s로 바뀌어져 전해졌다면 슬슬[se-se]과의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알 수 없으므로 어원에 관해서는 Persia어 혹은 Turkey어 전공자에게 의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 4) 녹송석의 산지와 특성

49) 集英社編(1967)《寶石》, 集英社, 124-125.

50) 《本草綱目》卷8, 〈金石〉, 56.

51) Laufer(1919), 516.

52) 《物理小識》卷7, 18.

53) Bretschneider(1880), 175.

54) Laufer(1919), 516.

55) 章鴻釗(1925), 69.

56) Bauer, 393.

57) 《ペリシアの遺玉》(1979), 新人物往來社.

58) Steingass. F. (1979), PERSIAN DICTIONARY, Oriental Report, 944.

59) Hony(1980), TURKISH-ENGLISH DICTIONARY, Oxford, 106.

60) Harold Newman(1981) AN ILLUSTRATED DICTIONARY OF JEWELRY, New York, Thames & Hudson, 314.

61) 久米武夫(1963)《新寶石學》, 風間書房, 417-418.

62) Steingass. F. (1973), 903.

여기서 녹색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봄으로서 슬슬이 녹색석이라고 한 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녹색석은 불투명한 보석 중 가장 우수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空青色, 綠青色, 黃綠色을 띄며, 산지에 따라 색이 다르다.<sup>63)</sup> 이란의 Nishapur산은 진한 청색으로 그 가치가 가장 높다. 이란 외에도 Sinai반도와 미국의 New Mexico에서 생산되며, 미국산은 옅은 청색이며 검은 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64)</sup>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녹색이 강하다. 즉 녹색석은 그 산지에 따라 색이 다르고 또한 그 색에 의해 질이 분류되었다. 녹색석은 또한 인류가 가장 일찍이 사용한 보석의 하나로, 이집트, 페르시아, 중국, 잉카, 아즈텍 등 고대 문명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이렇게 동서에서 모두 발견되는 것은 색 그 자체가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녹색석이 表生鑛物로, 그 채취가 용이하고 強度가 5~6으로 비교적 낮아 절단 등 가공이 용이하여 쉽게 장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65)</sup> 녹색석은 독립적인 장신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嵌入細工을 하는데 사용되었으며,<sup>66)</sup> 발견된 유물은 대체로 상감기술의 발달과 관계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殷代에 이미 상당 수준의 상감기술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에 대한 유물도 많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 상감의 재료로 쓰인 재료는 玉·翡翠·瑪瑙·綠松石·水晶 등이었다.<sup>67)</sup> 특히 戰國時代에는 가는 선으로 무늬를 세기고 거기에

바탕과는 다른 재료로 상감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때 녹색석은 그 색채가 선명하여 많이 응용되는 재료였다.<sup>68)</sup>

이집트에서도 녹색석은 靑金石, 紅玉隨 등과 함께 장신구에 상감하여 사용하였고, 잉카제국에서도 後古典期부터 녹색석을 상감하여 사용하였다.<sup>69)</sup> 또한 아즈텍에서는 기원전 800년이전부터 녹색석을 상감하여 사용했는데, 특히 금제품을 많이 상감했다고 한다.<sup>70)</sup> 이 외에도 티벳의 경우를 보면, 청동기에 주로 상감하였는데, 녹색석 외에도 마노·수정·홍옥수가 이용되었다.<sup>71)</sup> 특히 부인의 장신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sup>72)</sup> 그리고 가장 좋은 질의 녹색석을 생산하는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제국시절에는 왕의 장식품으로, 또한 祭器 등의 장식에 녹색석을 애용하였다.<sup>73)</sup>

이상에서 瑟瑟은 그 이름이 借用되어 琉璃를 말한 경우도 있으나, 원래는 綠松石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鈿에 대한 고찰

鈿은 비녀 鈿, 보배로 꾸민 그릇 鈿으로 정의되어 있다.<sup>74)</sup> 그러나 鈿의 어원을 찾아 보면, “금속제의 장식공정”이라고 되어 있다.<sup>75)</sup> 또 《廣韻》의 기록에서도 金釧 등의 장식물을 가르키며, 특히 칠기에 介殼 등을 嵌飾한 것을 螺鈿이라 하였다.<sup>76)</sup> 또 중국에서는 鈿을 螺鈿 외에도 金銀珠寶로 양한 하

63) 久米武夫(1963), 417.

64) Bauer, 394-397.

65) 《寶石》(1984), 51.

66) 久米武夫(1963), 417.

67) 天津市藝術博物館編(1983), 《天津市藝術博物館》, 講談社, 205.

68) 河南省博物館編(1983), 《河南省博物館》, 講談社, 161.

69) Treasures of the Ancient Andes(1980), 講談社, 288.

70) 《페루국보전》(1982), 한국방송사업단.

71) P. Pal(1983) ART OF TIBET, University of California, 186.

72) ibid. 213, 247-250, 254.

73) 《페르시아의 遺寶2》(1979), 新人物往來社,

74) 張三植編(1980), 《大漢韓辭典》, 1576.

75) Berahard Karlgen(1966), 《漢字古辭辭典》, 아세아문화사영인(1975), 287.

76) 《辭海》, 2959에서 재인용.

형의 장식물 및 장식공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sup>77)</sup> 즉 鈿에는 비녀라는 의미보다는 양 혹은 감식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개를 嵌飾한 것을 螺鈿이라고 하며, 또한 자개를 박아 꾸민 공예품을 뜻하기도 한다.<sup>78)</sup> 여기에 감식하는 재료를 자개 대신 金·銀·珠·寶로 바꿔 한다면 이를 金鈿·銀鈿·珠鈿·寶鈿이라고 했을 것이며, 보석 중에서 특히 슬슬이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슬슬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鈿 앞에 쓰인 글자는 감식한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原田淑人 역시 鈿에 嵌飾의 뜻을 있음을 일찌기 그의 논저에서 밝힌 바 있고,<sup>79)</sup> 그 예로 나전을 들었었다.<sup>80)</sup> 그리고 일본 正倉院의 平螺鈿背丹鏡이 그 예라고 하고, 감식한 재료를 녹송석, 청금석이라고 하였다.<sup>81)</sup> 또한 《天工開物》에서도 玉器를 만들 때 생기는 부스러기를 花鈿에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2)</sup>

따라서 鈿은 양감으로, 장식세공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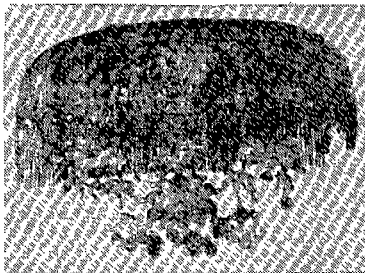
### Ⅲ. 결 론

신라시대 眞骨女와 六頭品女에게 그 사용을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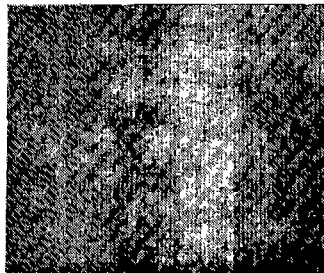
한 瑟瑟·鈿은 수식 및 관모에 녹송석을 양·감식한 것을 말한다. <도 1>의 장식빚이 《三國史記》에 기록된 瑟瑟鈿梳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왕비에게만 그 사용을 허용한 수식은 敦煌벽화의 여자공양도의 冠과 脛飾(도 2)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 사용된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도 3>과 같은 형태로, 중국은 <도 4>의 형태로 추정된다. 녹송석은 또한 신라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 들어 있었다. 즉 평양 석암리 9호에서 출토된 금제 띠고리<sup>83)</sup>와 곰다리상<sup>84)</sup>이 그것이다. 이들 유물에 각각 녹송석이 감식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중국의 한나라와 관련되어 녹송석이 신라 이전에 한반도에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螺鈿鏡(도 5)의 예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 正倉院의 平螺鈿背丹鏡과 같은 양식으로, 여기에 녹송석과 조개껍질이 감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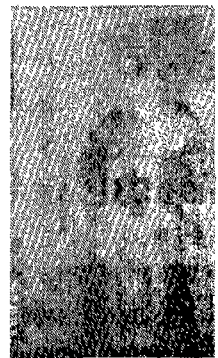
이상에서 瑟瑟·鈿은 신라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존재했으며, 瑟瑟의 전래경위가 중국을 거쳐 서역에서 전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당시 금속세공기술의 발달 정도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圖 1> 瑟瑟鈿梳  
출처 : 한국미술전집2 · 고분미술 p.130



<圖 2> 瑟瑟鈿梳  
출처 : 한국미술전집2 · 고분미술 p.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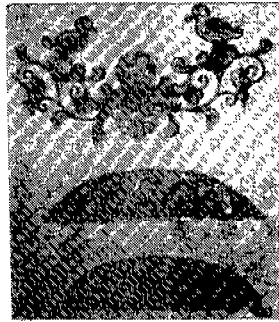


<圖 3> 여자공양도  
출처 : 敦煌藝術寶庫5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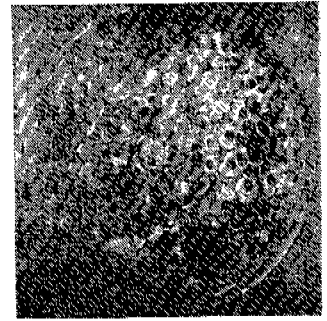
77) 《國語辭典》(1981), 1冊, 商務印書館, 936.  
78) 이희승 편(1986),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646.  
79) 原田淑人(1940), 《東亞古文化研究》, 塵右實刊行會, 177.  
80) ibid. 176.  
81) 原田淑人(1962), 151.  
82) 《天工開物》, 下, 60.  
83) 국립중앙박물관 편(1987),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230.  
84) 국립중앙박물관 4층 제4전시실 낙랑실에 전시됨.



〈圖 4〉 장식품의 일부  
출처 : 한국고분미술전집2·고분미술 p.127



〈圖 5〉 장식품의 일부  
출처 : 世界美術全集·中國Ⅲ, 칼라사진 11



〈圖 6〉 螺鈿鏡  
출처 : 한국미술전집2·고분미술 p.128

### 參考文獻

- 《舊唐書》
- 국립중앙박물관 편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1987.
- 近山晶 《寶石·貴金屬大辭典》 學習研究社, 1982.
- 金富軾 《三國史記》 경인문화사영인, 1969.
- 《辭海》 中華書局, 1974.
- 《隋書》
- 原田淑人 《東亞古文化研究》 座右寶刊行會, 1940.
- 《東西古文化論考》 吉天弘文館, 1962.
- 《魏書》
- 이룡범 《韓國史新論》 1969.
- 李時珍 《本草綱目》
- 이종세 《萬物草》 서울대박물관, 1949.
- 장삼식 편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74.  
《中華古今注》
- 集英社 編 《寶石》 集英社, 1967.
- 天津市藝術博物館編, 《天津市藝術博物館》 講談社, 1983.
- 《페루국보전》 한국방송사업단, 1982.
- 《페르시아의 遺寶2》 新人物往來社, 1979.
- 河南省博物館編, 《河南省博物館》 講談社, 1983.
- 《한국미술전집2·고분미술》 동화출판사, 1974.
- Bretschneider, MEDIEVAL RESEARCHES FROM EASTERN ASIATIC SOURCES,

Routledge & Kegan Paul, 1880.

- Harold Newman, AN ILLUSTRATED DICTIONARY, Thames & Hudson, 1981.
- Hony, TURKISH-ENGLISH DICTIONARY, Oxford, 1980.
- Laufer, SINO-IRANICA, Taiwan Th'eng, 1919.
- Steingass. F., PERSIAN DICTIONARY, Orient Report, 1979.

### ABSTRACT

#### A Study on the Sil-Sil and Chun

This is a study on Sil-Sil and Chun.

Sil-Sil is a kind of turquoise. According to its burial place and use, its identity was fixed. It was discovered in the Middle-East Asia like Iran and Tibet. Ancient China imported turquoise from these countries. Korea also imported it in Shilla period. It was the empresses only who had the priviledge of using Sil-Sil for their ornaments such as hair-pins, headdresses and combs.

Chun was a sort of metal ornaments. Chun required a high-skilled work and it showed how advanced its skill at that time.